

이대서울병원 23일 개원

첨단 의료기기·IT기술 접목... 스마트 병원으로 재탄생

기준병실 3인실·중환자실 1인실
모든 의료진 '전문의'만으로 구성
첨단 무장한 환자 중심 병원으로

한국 첫 여성 병원인 '보구녀관'이 132년 역사를 품고 다시 한번 새로운 미래를 연다.

1887년 조선 부녀자들을 위한 여성 전문 병원으로 시작한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오는 23일 이대서울병원을 정식 개원한다. 기준병실 3인실, 전 중환자실이 1인실로 구성됐고 모든 의료진이 전문의로만 이루어진 '스마트 병원'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예정이다.

◆새로운 진료 모델 제시

이대서울병원은 8일 병원 대강당에서 개원 기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대서울병원은 지난 2월 첫 진료를 개시하고 오는 23일 정식 개원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문병인 이화의료원장은 "외형이 화려하고 호텔같은 병원이지만 최고보다 최선을 지향하는 마음으로, 환자 한분 한분을 정성껏 살피는 환자중심의 병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대서울병원은 우선 진료의 패러다



이대서울병원 스마트 수술실

임을 바꾼다. 국내 처음으로 기준 병실 3인실, 전 중환자실 1인실로 설계되었으며 1인실, 특실, 중환자실, 무균병동, 항암주사실 등 총 1014병상으로 구성된다. 3인실은 병상당 면적이 10.29㎡로 의료법상 1인실의 병상당 면적 기준인 6.5㎡보다 넓다. 전체 병실이 1인실로 구성된 중환자실 80개 병상은 간호사스테이션을 중심으로 병실이 배치돼 의료진의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모든 의료진은 전원 전문의로 구성되는 것도 파격적이다. 뇌하수체종양 수술 명의인 김선호 교수와 폐암 명의인 성숙환 교수를 영입한 데 이어 지속적으로 명의급 의료진을 영입해 심장 이식 명의인 서동만 교수, 대장암 명

의인 김광호 교수 등 기존 의료진과 함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편육범 이대서울병원장은 "인턴이나 전공의 없이 오로지 전문의만으로 꾸려지는 드림팀을 만들어 의료계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며 "500병상을 기준으로 인력 구성을 마쳤고, 자신감도 있다. 병상 확대에 따라 단계적으로 또는 수시로 필요 인력을 보충해 운영에 전혀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환자가 최우선인 병원

이대서울병원은 첨단 의료기기와 스마트 시스템으로 무장한 환자 중심 병원을 표방한다.

병원은 터치패널 하나로 수술에



문병인 이화의료원장(왼쪽)과 편육범 이대서울병원장.

필요한 각종 의료기기를 조정할 수 있는 수술실 시스템인 올림푸스의 '엔도알파'를 국내 처음으로 도입했다. 엔도알파는 집도의와 수술 종류에 따라 사전 입력된 환경 설정을 토대로 버튼 하나로 수술별 환경 설정이 가능한 '프리셋' 기능을 갖추고 있다. 환자의 생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임상통합상황실은 이상 증후가 있

는 응급환자를 실시간 주치의에게 알려 위험상황을 사전에 막는다.

환자는 물론 보호자까지 배려한 세심한 서비스도 눈에 띈다. 이대서울병원은 서비스 혁신단을 신설하고 서비스 디자인 전문가인 김진영 교수를 부원장으로 영입했다. 환자 중심 스마트 병원에 걸맞는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병원 4층 중앙 정원인 '힐링가든'은 환자와 의료진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도심 속 녹지 공간이다. 병원 외부엔 세계적인 미술 작가의 작품인 '호프버드' '스노우맨' 등을 설치했다.

표 원장은 "진단과 치료를 넘어 치유와 힐링을 선사하는 병원을 만들어 환자는 물론 보호자의 만족도 극대화 하겠다"며 "환자들의 안전성을 최우선에 둔 병원으로의 성장을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SPC GFS 이탈리아 '보니찌'와 독점공급 계약

SPC삼립의 식품 유통 전문 자회사 SPC GFS는 이탈리아 유제품 전문 기업 '보니찌(Bonizzi)'와 국내 독점 공급 및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1968년에 설립된 '보니찌'는 청정지역인 이탈리아 밀라노 산티노에 있는 유제품 전문 제조기업으로 유크림, 베샤멜 소스(밀가루, 우유 크림 및 버터로 만들어진 소스), 멸균우유, 젤라또 원료 등 다양한 유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보니찌' 제품은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 산맥 지역에서 착유한 신선한 우유로만 만들어 품질이 우수하고, 미국 식품의약품(FDA), 할랄(무슬림이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 코셔(유대교 율법에 맞게 제조된 음식) 등 국제 규격 인증을 확보했다.



SPC삼립의 자회사 SPC GFS가 이탈리아 유제품 전문 기업 '보니찌'와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SPC삼립

SPC GFS 구매 관계자는 "이번 계약을 통해 다양한 이탈리아산 프리미엄 유제품을 상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글로벌 유제품 전문 기업 '보니찌' 제품 공급 유통망을 온라인 채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유전자 분석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동원F&B, '마이 G스토리' 론칭

동원F&B의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GNC가 소비자 직접 검사(DTC)를 통한 고객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마이 G스토리(사진)'를 론칭했다고 8일 밝혔다.

'마이 G스토리'는 고객의 총 14가지 항목에 대한 유전적 요인 검사와 문진검사를 통해 현재 고객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1:1 맞춤 상담을 제공해 알맞은 성분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마이 G스토리'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제공받은

타액 수집 용기에 직접 침을 모아 보존액과 섞어 GNC 매장에 제출하거나, 택배로 수집 용기 키트를 발송하면 점검 결과와 추천내용을 받을 수 있다.

'마이 G스토리'는 유전자 분석과 미세배열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마크로젠'사와 협업을 통해 개발됐다. 1997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유전체의학연구소를 모태로 설립돼, 현재 세계 150여개국 18만여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유전자 분석 전문 기업이다. /박인용 기자



인보사 '집단소송' 본격화 110명 이달 소장 접수



법무법인 오킴스, 투여환자 모집
시간 지날수록 참여 더 늘어날 듯

주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의 집단 소송이 본격화됐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오킴스가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인보사 투여 환자를 모집한 결과, 전날 기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환자는 110여명으로 집계됐다. 오킴스는 5월 내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인보사는 사람연골세포(HC)가 담긴 1억과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 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억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

사액이다.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았다. 최근 2억 성분의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오킴스는 지난달 16일부터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는 중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판매사는 허가 또는 신고된 의약품으로 그 성분 또는 분량이 허가된 내용과 다른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는 3707명이다.

특히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2년 전 이미 인보사의 성

분이 뒤바뀐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소송을 문의한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오킴스의 엠태섭 변호사는 "현재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110여명 환자 중 절반 이상은 진단서와 위임장 등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다"며 "하루 평균 10여통의 문의 전화가 오고 있어 앞으로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엠태섭 변호사는 "이달내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환자 중에는 본인이 인보사를 맞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소송이 시작된 후 참여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있는 만큼 소장을 접수한 후에도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GC녹십자웰빙, '라이넥' 간 절제 후 재생에 효과

인태반가수분해물 '라이넥'의 간 재생 효과를 확인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개인맞춤형 헬스케어 솔루션 전문회사인 GC녹십자웰빙은 '라이넥'의 간 재생 효과를 확인한 논문이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국제 학술지인 '바이올로지컬 앤 파마슈티컬 볼레틴(Biological and Pharmaceutical Bulletin)' 최신호에 게재됐다고 8일 밝혔다.

'라이넥'은 만성 간질환 환자의 간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허가된 주사제이다. 사람의 태반에서 추출한 물질인 '인태반가수분해물'로 만들어지며, 지난 2010년 이뤄진 인태반가수분해물의 재평가에서 유일하게 유효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연구에서는 '라이넥'의 간 재생 효과가 다방면에서 확인됐다. 실제로

부분적으로 간을 절제한 동물모델에서 '라이넥'을 투여한 결과, 투여군의 간세포 성장인자(HGF)가 대조군 대비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3일 후 간 재생률 역시 투여군이 대조군에 비해 22% 높게 나타났으며, 간 재생에 도움을 주는 '사이토카인' 역시 활성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세경 기자